

# 호동설화소재 희곡의 인물분석

심상교\*

## <차례>

I. 서론	2.1 <낙랑공주>의 인물분석
II. 본론	2.2 <자명고>의 인물분석
1. 설화 분석	2.3 <등등낙랑등>의 인물분석
2. 인물 분석	III. 결론

## I. 서론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에 관한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쓰여진 희곡에는 이동규의 「낙랑공주」<sup>1)</sup>와 유치진의 「자명고」<sup>2)</sup> 최인훈의 「등등 낙랑등」<sup>3)</sup> 등이 있다.<sup>4)</sup> 최인훈 희곡 「등등 낙랑등」에 대한 논의<sup>5)</sup>는 여러 편 있으나 앞의 두

\* 고려대 박사과정

- 1) 이동규, 「낙랑공주」, 명문당, 京城, 1945.8.
- 2) 유치진, 「동랑 유치진전집 I」서울예대출판부, 1993.
- 3) 최인훈,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최인훈전집10, 문학과 지성사, 1984(6판).
- 4) 이외에도 1930년 2월 《학생》지에 실렸던 최병화의 <낙랑공주>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삼국사기에 실린 내용과는 관계없다. 신라말 '경순왕의 태자 김충과 왕건의 장녀 낙랑공주'가 주인공인 이야기다.
- 5) 권오만, <최인훈희곡의 특징>「국제어문」, 1979.  
남진우, <최인훈희곡 연구>중앙대 석사, 1979.  
장혜진, <설화소재 희곡의 특성연구>이대 석사, 1981.  
유진월, <최인훈 희곡 연구>경희대 석사, 1988.  
송 전, <원초 심성의 탐구>「외국문학」, 1988년 여름호.  
서연호, <등등 낙랑등 해설>「한국의 현대희곡III」, 열음사, 1989.

작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동동 낙랑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포괄적인 것으로 설화적 내용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일반적 고찰이나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포괄적 논의에서 벗어나 두 주인공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인물을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두 주인공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분석을 통하여 작품 전체모습을 해명해 내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작품의 현대적 변용도 고찰될 것이다. 기존 논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설화 자체에 대한 정밀한 고찰 없이, 설화의 개략적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설화의 개략적 고찰은 설화의 현대적 변용을 정확히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화에 들어있는 많은 특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설화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도 놓치게 된다. 설화에서 설화적 상상력이나 작품의 구성력에 개연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비합리적 요인이 있다하더라도 설화는 문학적 상상력의 무궁한 소재를 제공하며 동시에 문학의 원천이 되는 바 설화의 개략적 고찰은 정밀한 고찰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밀한 분석은 한국적 심상의 원형 찾기에 이롭다. 그래서 본고는 삼국사기에 실린 호동왕자 이야기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설화 분석

호동(好童)왕자에 관한 기록은 三國史記 卷 第14 高句麗本紀 第2 大武神王條에 실려 있다. 이 기록의 성격 규명과 회곡으로의 내용 변개를 분명히 밝히고자 기록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겠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호동왕

김성수, <최인훈회곡의 연극성 연구>연대 석사, 1990.

양승국, <최인훈회곡의 독창성>「작가세계」, 1990년 봄.

김승욱, <한국회곡의 세계문학적 위상>「인문논집」36집, 고대, 1991.

이상우, <최인훈회곡에 나타난 문외의 의미>「한국극예술연구」4, 1994.

자에 대한 기록<sup>6)</sup>은 이해를 돕기위해 다음과 같이 분절하여 항목화 하였다.

- [낙랑에는 적의 침입을 自鳴으로 알려주는 신비한 鼓角이 있다]
- [가] 대무신왕(15년 4월, 서기 32년)때 호동이 옥저를 유람.
- [나] 낙랑왕 최리(崔理)를 만남--최리는 호동을 보통 사람같지 않다고 평.
- [다] 낙랑왕 호동을 낙랑땅으로 데려와 자신의 딸과 결혼 시킴.
- [라] 호동 고구려로 환국, 최씨녀(낙랑공주. 최리의 딸)는 낙랑에 남음.
- [마] 호동 최씨녀에게 사람을 보내 고각을 부숴야 예의 아내로 맞을 것이라 전함.
- [바] 최씨녀 예리한 칼로 고각을 부수고, 호동에게 연락.
- [사] 호동, 낙랑습격을 왕에게 권함.
- [아] 고구려군(우리군사로 표현) 낙랑습습, 승리.
- [자] 최리 고각이 부수진 것 확인, 딸을 죽이고 항복.

가' 대무신왕 낙랑을 멸망 시킬 목적으로 낙랑에 혼인을 청함.  
 나' 최씨녀가 고구려에와서 혼례를 치름.  
 다' 최씨녀를 낙랑으로 환국 시킴.  
 라' 무기(신비의 고각)를 파괴 시킴.

- [차] 元妃는 왕위계승이 걱정되어 次妃小生 호동을 참소.
- [카] 참소내용 : 첩을 예대하지 않음.  
 참소원인 : 왕위 계승문제로 걱정(왕이 호동을 몹시 좋아함).
- [파] 왕 호동을 직접 심문 -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어 부왕의 근심원인을 제공하면 불효.
- [하] 호동, 즉시 칼 물고 자결(15년 11월-약 7개월간의 일)

이 설화적 이야기<sup>7)</sup>의 시대적 배경은 고구려초기(서기 32년. 고구려 69년

6)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호동왕자 부분과 삼국사기 관련 내용은 다음 책을 원전으로 했다.  
 김부식 著, 김종권 譯, 『삼국사기』上, p.350~351. 명문당, 1988.

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p.95. 민음사, 1994.  
 호동에 관한 기록을 적절히 표현할 용어로 설화적 이야기를 사용한다.

경)로 고구려가 완전한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전으로 부근의 부족국가 형태의 나라들과 지속적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이다. 국가 성립기에 전쟁은 국가발전에 불가피한 요인이며 정복국가 성격을 띤 삼국시대에 민족 결정을 위한 삼국간의 분쟁과 영토보존을 위한 대외항쟁(한나라 포함)은 계속되었다.<sup>8)</sup> 삼국사기 대무신왕조 27년간 기록의 대부분은 인접 부족과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낙랑지역은 대무신왕의 재위기간 중에도 정벌하고 정복당하는 사건이 세 번이나 있었다.<sup>9)</sup> 낙랑은 대무신왕 재위 끝무렵(서기 44년)에 다시 한나라에 복속 되었다.<sup>10)</sup> 위 기록속의 호동은 효가 지극하고 충이 가득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데 당시의 충효사상은 유교적 사상과는 큰 차이가 있는<sup>11)</sup> 우리 전래의 복합적 시대정신<sup>12)</sup>으로 고대국가 형성기의 운영원리<sup>13)</sup>로 작용한 것이다. 이 충효사상에 위배되는 자는 엄격히 다스렸다.<sup>14)</sup> 그리고 당시 남자의 권위는 절대적<sup>15)</sup> 이었고 결혼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했으며 족외혼이 성하여 멀리까지 가서 배우자를 구해 오기도<sup>16)</sup> 했으며 결혼 풍습은 신랑이 신부집에 돈을 내고 데려오거나 아니면 노력 봉사로 대신하는 제도가 있었다. 결혼은 당시 대외 교류로서 일종의 외교전략<sup>17)</sup>이었다. 그리고 지배 계층의 남자는 무술 연마가 필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설화적 이야기가 바로 호동왕자 이야기다. 삼국사기의 호동왕자 관련 기록 (가)~(하)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안에서 대부분 해명된다. 고구려가 전개한 주변 부족의 복

8)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 p.282-283. 일조각.

9) 신형식, p.286.

삼국사기, p.345-352.

10) 삼국사기, p.352.

11) 신형식, p.421.

12) 신형식, p.415.

13) 신형식, p.415.

14) 신형식, p.417-429.

이 옥, 「고구려 민족형성과 사회」, p.224. 교보문고, 1984.

15) 이옥, p.249.

16) 이옥, p.244-245.

17) 신형식, p.296.

속 정책과 군사 정책, 전쟁 기록, 당시 지도 이념과 그 위배에 대한 처벌, 외교적 수단과 전략으로의 혼인 등의 역사적 사실이 설화적 이야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호동은 실제<sup>18)</sup>하던 인물로서 얼굴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고 (최리)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왕의 사랑을 받았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호동의 외양 표현에는 서술자의 문학적 수식이나 설화적 화자가 개입되어 있다. 자명고각의 설정도 마찬가지이다. 실재했던 인물을 기록하면서 이야기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플롯이 들어간 것이다. 항목 (가)~(자)는 고구려와 낙랑 사이의 역사적 사실인 전쟁의 긴장 관계를 호동왕자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플롯이 개입되고 설화적 상상력이 개입됨으로써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설화적 이야기가 되었다. 훌륭한 남자 주인공 호동의 등장,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 신비한 고각의 등장, 두 사람 사랑의 장애물인 고각, 고각 부숨, 배우자 사망 등은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로 성립된다. 설화에는 가변성과 가소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상상력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변개 가능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설화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설화 구성의 완전하지 못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호동 이야기에도 이러한 점이 있다. 신비한 고각의 등장과 배우자 최씨녀가 고각을 부수게—고각을 부수는 일은 곧 모국의 패망—되는 과정의 개연성 결핍, 강력한 고구려 군사력이 사전 정보 기능만을 하는 고각때문에 전쟁을 망설이는 이유의 근거부족 등이 지적된다. 설화적 특성을 전제하더라도 이 중에서 고각 파괴 과정의 개연성 결핍은 전체 구성의 결함이 된다.

호동 이야기의 설화적 특성을 살펴 보자. 설화적 특성은 희곡 분석에 많은 관련이 있다. 호동 이야기는 정해진 시간 속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이유로 해서 문헌 설화<sup>19)</sup>적 특성을 갖는다. 문헌 설화는 문자로 기록되어 향유층이 식자 계급으로 한정되어 첨삭이 적고, 구전 설화보다 민중의 세계가 덜 나타나며, 문헌 설화는 설화가 소설로 변모되는 과도적 작품<sup>20)</sup>이기 때문에,

18) 이옥, p.147.

19) 조희웅, 「설화학 강요」, p.58. 새문사, 1989.

20) 조희웅, p.58.

장덕순1, 「한국설화문학연구」, p.51. 서울대출판부, 1978.

작가의 개입이 자유로우며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다. 문헌 설화는 일상적·현실적 사실이 짙게 묘사되어 시대와 사회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삶의 한가운데서 시작되고 끝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갈등이 두드러지며 결말의 비극성도 있다. 또 기록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성취불가능한 부, 관, 금전, 결혼, 획득에 대한 열망이 엿보이며, 자주 의식 고취로 민족과 국가에 대한 긍지도 표출된다. 항목을 (차)에서 (하)로 확대하면, (가)~(하)는 설화 중 신화적 특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삼국의 고대 국가가 자리잡으면서 신화 시대가 끝났다<sup>21)</sup>고 정리된다. 대무신왕 때는 신화 시대의 끝부분에 해당된다. 신화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들어진 호동 이야기의 신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태생의 신비로움이나 기아, 죽을 고비에서 투쟁하여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다는 한국 신화의 일반적 유형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 신화의 주요 특성인 집단의 공동체적 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 속에서 역사적 투쟁을 반영<sup>22)</sup>하며 초월적 존재의 등장이 아니라 일상적 개인이 등장하여 신성시되며, 기능면에서 사회 통제나 제도의 중요성과 위엄을 인식케 하는 규범적 힘을 가지게 한다는 맥락에서 호동 이야기는 신화적 요소를 가미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투쟁이나 민족 의식 고취 요소는 항목 (아)에 나타난다. 고구려 군사를 '우리 군사'라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의 상대 낙랑은 적이 된다. 낙랑은 사실상 漢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사의 목표는 漢나라로 분명해지고, 의식은 고양되어 신화의 의도에 근접하게 된다. 삼국사기의 작자는 유교사관<sup>23)</sup>과 모화사상에 젖은 중화 지향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민족 의식이 암혀진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호동 설화의 신화적 요인인 것이다. 호동 이야기에 등장하는 고각은 기록상 儀式에 꼭 필요하며, 군사 행동에도 필요하고 위엄과 신성성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상징된다. 주몽은 의식을 갖추기 위해 북과 나팔을 원했으며<sup>24)</sup> 신하들은 이것을 하늘이 내리는 운명이자 선물이라

21) 장덕순2, 「설화문학개론」, p.45. 선명문화사, 1974.

22) 장덕순2, p.44.

23) 장덕순2, p.52.

24) 이 옥, p.145에서 동국이상국집의 내용을 재인용.

장덕순2, p.115.

여기며 비류에 가서 북과 나팔을 차지하여 돌아오기도 했다.<sup>25)</sup> 국가 체제를 알리는 의식에 즉, 나라의 명예를 올리는 데 북과 나팔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장례식 때 죽은 사람을 승천 시키는 도구<sup>26)</sup>로 쓰이기도 했으며, 알타이족 무당들은 주문을 외며 북을 쳤다고 한다. 고구려에 있어 북은 주문의 활만큼 신성한 것이며 국가 형성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낙랑의 북은 중국의 천둥의 문<sup>27)</sup> 같은 것으로 신비스러운 물건이다. 북의 찢음은 표면적으로 낙랑의 패배와 최씨녀의 죽음을 결과했지만 내면에는 신성애의 도전, 신비 세계의 파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최씨녀의 북찢음은 관습과 사고 체계의 혁명적 전환을 기도하는 즉, 신화적 세계관을 인간적 세계관으로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설화의 현재화에 매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하)의 이야기는 한 출중한 인물의 비극적 일생을 암시하는 면도 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지만 주변의 시기와 질투에 희생되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한 왕자의 비극적 삶을 이야기처럼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라' 항목의 내용은 플롯이 배제된 채 고구려의 전쟁 승리와 낙랑 북속의 목적 의식만이 부각되고 있다. 다'에서 라'로 변화하는 최씨녀의 사고변이 과정이 궁금하고 기록자의 주관적 견해나 해석일 뿐 다'~라'의 내용을 서사적으로 엮어내기에는 구성적 힘이 부족하다.

(가)~(하)를 권력 투쟁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새로운 소재가 나타난다. 호동은 차비의 소생으로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다. 왕위 계승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래서 호동은 원비를 비롯한 지지 세력으로부터 많은 참소와 견제를 받는다. 호동의 일시적 패배로 그는 옥저로 강제 유람(유배)을 떠났다. 낙랑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고, 점차 권력에서 소외된다. 절치부심하던 호동은 군사 영웅을 통해 권력 회복과 세력 만회를 시도한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하나로 난적 낙랑을 패망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력자 부족과 원비의 왕자 승계 관습(또는 동생)에 따라 호동은 군사권 장악에 실패하게 되고

25) 장덕순2, p.115.

26) 이옥, p.146.

27) 이옥, p.146.

권력 투쟁에서 패배, 죽게 되는 것이다. 자결이 아니라 권력에 제거되는 것이다.

(차)~(하) 부분을 그리스 신화와 연관지어 보자. 그리스 신화에 테세우스 왕과 그의 아들 이폴리토스, 이폴리토스를 사랑하는 계모 페드르, 이들 사이의 얽힌 이야기가 있다. 에우리피데스가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희곡을 창작했으며, 이것은 다시 세네카, 라신느에 의해 재창작되었다. 미청년 이폴리토스를 사랑하는 계모 페드르, 사랑을 고백한 후 상황 변화에 이끌려 남편에게 이폴리토스를 참소하는 페드르, 이폴리토스에게 내린 징벌(죽음), 페드르의 자살, 이러한 내용은 호동 이야기 (차)~(하) 부분의 계모, 참소, 미청년, 징벌에 의한 죽음 등의 화소와 유사하다. 항목 (차)~(하)에서 왕자 호동과 계비와의 사랑이야기는 없다. 그러나 페드르적 변용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항목 (차)~(하)의 페드르적 변용이 최인훈의 「둥둥 낙랑둥」이라고 생각한다. 본론 2.3에서 다시 논의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 삼국사기 대무신왕(고구려 3대왕, 서기 1세기 초반)조의 호동 이야기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역사상의 사건을 근간으로 설화적 재미와 동시대의 문화적 면모를 혼합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호동 이야기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라는 제목의 전설같은 동화로 알려져 있으며, 뚜렷한 성격 없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호동 이야기는 기록자의 모화 사상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부단한 주변과의 투쟁 속에 형성되는 고구려민의 자주적 민족 의식과 공동체 형성의 열망이 나타나며, 호동과 낙랑 개인의 삶을 통해 볼 수 있는 남녀 관계의 한국적 비극의 원형, 고각을 부수는 일을 통해 전통의 사고 체계에서 탈피하려는 혁신적인 생각, 현실의 삶과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생각 등을 알 수 있고, 당시 문화의 일면도 엿볼 수 있으며 권력과 그리스 신화에 대비하여 보면, 권력 투쟁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모습과 계모와의 알력에서 희생되는 개인의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 구성에서 개연성의 결핍과 비합리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용의 현실성, 사회성, 비극성, 정치성도 많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동 이야기는 짧지



만 우리 민족의 많은 원형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몇 가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희곡 작품들이 호동 이야기를 어떻게 현재화하고 새롭게 표현했는지 고찰하겠다. 방법은 희곡의 두 주인공 호동과 낙랑공주의 인물 분석을 통해 전개해 나가겠다.

## 2. 인물분석

### 2.1 <낙랑공주>의 인물분석

이동규의 「낙랑공주」<sup>28)</sup>는 1939년 작이다. '1930년 후반의 한국 연극은 관객에게 위안을 주었고 즐거운 오락을 제공했다. 궁핍한 경제상과 메마른 정서를 달래기 위해 대중극 등이 많이 공연되었는데'<sup>29)</sup>, 이 중에서 역사상의 사건이나 인물에서 제재를 취한 역사극<sup>30)</sup>도 제작되었다. 낙랑공주도 그런 과정의 부산물로 생각된다. 이동규는 대중극으로서 설화 가극인 「운림지」<sup>31)</sup>와 「낙화도」, 「온달」<sup>32)</sup> 등의 역사상의 사건이나 인물에서 소재를 취한 역사극을 발표했다. 1930년 후반의 작품에는 역사 소재의 희곡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역사 소재의 희곡이 많았던 원인에는 망각되어가는 민족 정기와 민족 정서를 복돋으려는 목적도 있었고<sup>33)</sup>, 현실에서 소재를 취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

<낙랑공주>는 제목에서 암시되듯 삼국사기 호동왕자의 설화적 이야기가 바탕이 된다. 앞의 호동 설화 항목 (가)~(자)와 가'~라'의 내용이 조금씩 혼합되어 있다. 호동은 처음부터 '큰 일'(이동규 p.2)을 하기 위해 옥저를 통

28) <비판>, 1939.4.

「낙랑공주」, 명문당, 1951.

29)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p.238~239.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4.

30) 서연호, p.255.

31) 서연호, p.236.

32) 서연호, p.268.

33) 서연호, p.268.

해 낙랑에 들어갔으며 낙랑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연유도 모두 호동의 ‘무서운 꾀’(이동규 p2)에 해당한다. 무서운 꾀란 바로 낙랑국의 고각을 부수는 일이다. 호동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주도면밀하게 자신의 목표를 실행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낙랑공주는 무예에 출중한(이동규 p.4) 고구려의 한 왕자를 매우 사랑하는 인물이다. 공주는 운명적 사랑의 감정 속에서 고각을 부수게 된다.

호동은 부왕이 인식시켜 준 영토 확장 즉 낙랑 멸망의 대업에 강제되어 있고 호동에게 이것은 곧 자신의 욕망이자 실존적 고뇌가 된다. 호동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한다. 이 욕망은 자아 세계 전부를 차지하게 되고 욕망의 자아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에 몰두한다. 이러한 호동은 즉각적 인물형<sup>34)</sup>이며 목적을 향해 저돌하는 돈키호테형과도 유사함을 나타낸다. 목적 달성 과정에 장애되는 것에는 패념하지 않는 사디스트적인 모습<sup>35)</sup>도 있다.

공주는 운명적 비극의 주인공이다. 첫부분이 운명의 비극처럼 전개된다. 왜냐하면, 호동의 무예가 출중하고 공주의 부왕이 호동에게 호감(이동규 p.16)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비의 고각을 부수서 낙랑을 폐망시킬 만큼 사랑의 개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공주가 호동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적 만남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멀리서 공주가 호동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랑의 감정을 가져버린 것이다.(이동규 p.2~8) 마치 페드르가 의붓아들 이폴리토스를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되듯 낙랑공주도 호동을 운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호동의 공주에 대한 접근의 가장 큰 이유가 사랑보다 고각을 부수기 위함인데 공주는 호동과의 사랑 속에 고각 파괴가 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공주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는 운명에 놓여져 희생되어 가는 것이다. 고각을 부수면 낙랑이 폐망하리라는 것을 아는 공주가 호동과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이동규 p.30)하게 되는 때부터는 성격 비극적인 면이 강해진다.

34) 조남현, 「소설원론」, p.143. 고려원, 1993.

35) 르네지라르 著, 김윤식 譯, 「소설의 이론」, p.13~14. 삼영사, 1978.

공주가 호동과의 사랑을 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죽게 되지만 호동과의 사랑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많은 고뇌 속에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어느 쪽의 선택도 공주에게는 비극적이었을 것이다. 사랑과 애국의 사이에서 공주는 병적 정신상태를 보인다. 일상생활에서의 좌절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신증이거나 정신분열증 또는 해리형히스테리의 다중인격<sup>36)</sup>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자신의 의사나 결정과 관계 없이 운명지워진 상황 속에 처한 낙랑 공주는 운명 비극의 주인공처럼 구속되어 있는 것이다.

공주는 자신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억압적 상황을 탈출한다. 복을 부수는 것이다. 공주는 내향적 성격으로 스스로 사랑의 감정에 함몰되어 자신의 행동이 행복의 욕망에 상충되고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선택의 갈등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어느 쪽의 선택도 공주에게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주는 선택의 갈등에 강할 수 없다. 운명적 비극의 요소가 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햄릿과 같이 상황 선택의 심한 갈등에 빠져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어느 상황을 선택하더라도 공주에게 주어지는 것은 비극적 상황이라는 같은 결과이다. 이 점이 햄릿의 비극과 다르며 운명적 비극성이 우위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고각을 부순 후 공주는 자신의 행동을 심히 자책한다.(이동규 p30) 그러나 사랑을 위해 나라를 배반했음(이동규 p31)을 자각해도 호동의 사랑이 아닌 애국을 선택했을 때 느꼈을 괴로움도 이에 못지 않았을 것이다. 진퇴양난의 운명에서 괴로워 하지만 어느 쪽도 공주에게는 행복을 결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주는 사디즘적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한 인간의 삶 중 어느 부분도 가학적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점은 희곡이 발표된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비시켜 보면 흥미롭다. 작품이 발표된 1939년의 주변은 폭압적 상황이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이 끝나는 1940년대 중반까지 약 15년 간

36) C. 내레모아 著, 김연 譯, 『이상심리백과사전』, p.176~179, p.408~414. 보이스사, 1982.

은 일본 자체도 유래가 드문 파시즘 체제로 나아가고 군부가 침략 전쟁에 미쳐 날뛰던 시기였지만, 파시즘의 횡포는 식민지 조선에서 훨씬 더 난폭했다. 식민지 지배의 절정을 이룬 파쇼체제의 광란은 식민지 주민 개개인의 생활을 파멸로 몰아넣었다.<sup>37)</sup> 일본의 파쇼체제는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 폭압 통치를 자행했고 식민지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있었다. 식민지인의 개인 생활은 불행했고 폭력적인 강제 세력 앞에 던져진 비극적인 운명이었다.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국가총동원법<sup>38)</sup>, 조선교육령<sup>39)</sup> 등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통제와 폭력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런 폭압적 상황에서 예술이 선택하는 길은 순수일 것이다. 탈정치, 탈동시대, 탈비판의 순수 성향은 현실 밖에서 소재와 창작의 동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당시 대중극, 역사 소재주의 극의 성행도 이런 상황의 결과인 것이다. <낙랑공주>도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낙랑공주의 비극적 상황을 당시 우리의 비극적 상황과 견주어 보자.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식을 일깨우려는 적극적 저항의지나 도탄적 30년대말을 증언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한 개인의 행복을 조금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의 설정은 당시의 한국 상황과 흡사하다. 공주가 자신의 운명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인물이었다면 고통받는 식민지 현실이 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공주는 고각 파괴와 호동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초조해 한다. 고각 파괴의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 호동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우세하여 고각 파괴를 행하고 만다. 고각 파괴를 바라는 호동의 압력이 나타나면서 부왕의 낙랑이 변성해가는 모습이 나타나 공주의 갈등을 더 악화시켰다면, 다시 말해 비극적 상황에 몰린 공주의 갈등을 더 강화하는 주변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낙랑공주의 현재적 의미가 분명해졌을 것이나 미약한 표현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문단은 민족문학의 복고주의가 횡행하였다. 비판의식을 박탈당한 채 우리 전통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극계도 이와 비슷하였다. 신파극적인 연민

37) 강만길, 「한국현대사」, p.37. 창작과비평사, 1985.

38) 강만길, p.33.

39) 강만길, p.140.

의 확대와 조장으로 식민지인의 고통을 달래려 한 것 같다. <낙랑공주> 어디에도 낙랑이 한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거나 고구려의 낙랑 정벌 이유가 대외 세력의 배척에 있다는 암시도 없다. 상황의 폭압성을 넘어서는 희곡적 장치나 인물 설정이 필요했다. 또 역사적 기록 속에 있는 사건을 이용한 작품인데 현재적 변용이나 해석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주의 욕망은 낙랑의 보존과 호동과의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동과 낙랑의 보존은 양립될 수 없다. 부왕의 뜻은 낙랑을 정벌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호동의 뜻이다. 그리고 호동은 그 목적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사랑을 시작한 인물이다. 양립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싶은 공주의 욕망은 이루어질 수 없다. 공주는 갈등 속에 호동과의 사랑을 선택하지만 선택의 개연성이 없다. 공주의 종속적인 태도와 일방적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빠져 있다. 공주는 호동을 무조건 사랑해야 할 인물인듯이 설정되어 있다. 작위적인 인물 설정이다. 어떠한 성격 발전도 기대되지 않는 기능적 인물<sup>40)</sup>이 되고 말았다.

호동은 신비의 고각을 부수기 위해 낙랑에 들어가 공주가 자신을 사랑함을 알고 그 사랑을 이용해 정략 결혼하고 고각을 부숴야 고구려왕에게 결혼 유히를 받아 공주를 고구려로 데려가겠다고 억압한다. 고구려에 간 호동은 무예를 닦으며 고각 파괴 전갈을 기다린다. 전갈이 오자 낙랑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다. 고각 파괴의 별로 공주가 부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것을 확인한 호동은 슬퍼하며 진정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무심한(이동규 p51) 자신을 자책한다. 공주의 시체를 확인하기까지 공주와의 사랑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던 호동이었다. 자신의 목적 달성에 공주의 사랑을 수단화했던 호동이다. 설정한 목표를 향해 저돌하는 성격으로 주변의 변화와 무관한 평면적 인물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공주의 시체를 안고 슬퍼하는 장면은 공주의 사랑과 죽음에 대한 관객의 애련을 유도하는 작위적 최루장치이다. 정치, 문학의 30년대말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슬픔의 정서가 신파극조로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시대의 억압이나 흥행 위주의 상업성을 고도의 희곡적 장치

40) 송하춘, 「1920년대 한국소설연구」, p.188.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5.

나 상상력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속에 함몰된 비극적 내용의 희곡을 통속 비극이라 한다면 <낙랑공주>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를 만들고자 노력한 한 젊은 왕자의 이야기가 일제하에서 변형의 과정에 성공하였다면 일제를 성공적으로 패러디화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낙랑공주의 강박의식을 통한 일제의 탄압 비판이나 호동의 평면적 성격을 이용한 독립 의지의 고취가 가능했을 텐데, 전형화된 설화적 이야기의 본질을 재현하기보다 신파극적인 대중성에 매몰되고 말았다. 패러디는 고전에서 그 대상을 많이 빌려온다. 옛 것에 대한 미메시스를 고전주의라 한다면 擬似 미메시스적이며 성공하지 못한 패러디는 속류고전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동규의 <낙랑공주>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한다.

## 2.2 <자명고>의 인물분석

유치진의 <자명고>는 1947년에 발표되었다.<sup>41)</sup> <자명고>의 왕자 호동과 낙랑공주는 적극적 인물이다. 희곡 장르가 전진적 모티프에 의거하여 전개되는 장르라고 한다면, 두 인물은 이에 적합하다. 둘은 자신의 삶을 능동적 행동으로 고쳐나가며 상황 변화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무지에서 앎을 발견하는 성격의 발전<sup>42)</sup>도 나타난다. 희곡의 형식적 특성에 익숙한 작가의 작품임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경직된 작가 의도가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어 관념적 희곡이 되고 있다. <자명고>는 희곡의 형식적 틀과 작가 의도의 틀 모두에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희곡에 대한 익숙함의 결과이고 후자는 계획된 의도로 내용을 재단하는 올바른지 못한 작가 태도의 결과이다. 유치진이 희곡 장르에 익숙한 것은 당연하다.<sup>43)</sup> 그러나 당시의 문단 상황에 대

41) 1947년 2월에 공연(서연호 p.329)

42) 아리스토텔레스 저, 손명현 역, 「시학」, p.82. 박영사, 1975.

43) 유치진은 1931년 <도막>발표를 시작으로 47년까지 약 20여편에 가까운 작품을 발표했다. 자세한 것을 원하면 서연호의 「한국근대희곡사연구」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82의 217부터 237까지를 찾아 보던가 동저자의 「한국근대희곡사」고려대출판부 1994의 127부터 152까지를 찾아 볼 것.

응코자 쓴 것으로 보이는 <자명고>는 즉자적 대응에 그치고 말았다.

<자명고>는 호동의 설화적 이야기와 내용 전개가 많이 다르다. 설화에서 주인공의 이름과 신비한 고각만을 소재로 차용한다. 호동이 한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낙랑을 정벌하고자 하는 이유는 설화적 이야기와 <자명고> 가 서로 비슷하지만 그 방법은 많이 다르다. 두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도 다르다. 낙랑공주가 부왕의 손에 죽지도 않으며 호동과의 사랑에 매몰된 채 정신 분열<sup>44)</sup>적 상태로 고각을 부수지도 않는다. 공주와 호동의 관계는 처음에 적대적이었다. 둘은 삼국사기의 기록에서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다. 적대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로 협력자의 관계로 발전하여 고각 부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 내용을 살펴 보자.

낙랑왕 최리가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고구려와 낙랑의 경계선에 순수비를 제막한다. 높은 산 위에 위치한 곳이다. 신화와 무당이 함께 참여하여 비 제막의 의식을 거행한다. 이 곳에 호동왕자가 부하 두 명을 데리고 나타나 낙랑왕 최리를 죽이고 신비의 고각을 부수고자 한다. 호동은 낙랑왕 최리가 한나라에 제족속을 팔아먹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비난한다. 호동과 두 부하는 낙랑왕을 공격한다. 낙랑의 많은 군사와 한나라의 젊은 장군 장초 때문에 호동은 사로잡힌다. 호동을 사로잡은 낙랑은 잔치를 벌이고 호동은 끌려나와 고초를 받는다. 이 때 호동의 낙랑에 대한 비난의 말이 공주의 의식을 깨운다. 공주는 호동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서서히 바꾼다. 호동의 감옥에까지 찾아간 공주는 호동을 통해 새로운 의식을 자각하게 되고 신비의 고각도 부수기로 약속한다. 호동을 처형의 위기에서 구한 공주는 고각 파괴에 망설이나 호동의 설득으로 결국 호동과 뜻을 같이 하게 된다.

호동은 단일 관념, 단일 성격의 소유자이다. 호동이 갈구하는 바는 낙랑국을 한나라의 식민적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호동의 이러한 목표 의식은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조금의 흔들림도 없다. 자신의 지향점인 낙랑 정벌과 낙랑의 해방은 호동에게 最高善이다. 호동은 이 선의 실현을 위해

44) 앞의 주 36)번을 참조 할 것.

진사적 행동을 한다. 강인한 면모의 '외양'<sup>45)</sup>을 느끼게 되며 의욕과 활기가 넘치는 다혈질적이며 담즙질<sup>46)</sup>적인 기질을 알 수 있게 한다. 희곡에서 뚜렷한 성격의 소유자는 내용을 이끄는 데 주요 역할을 한다. 전진적 모티프의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동은 인상적인 인물로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다.

호동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졌다. 자주적 민족의식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다. 한나라에 의탁해 낙랑을 지배하는 최리를 악의 표상으로 생각한 것이다. 악의 제거를 위한 호동의 노력이 작품의 근간이다. 악을 제거하는 첫 사업이 神鼓를 부수는 일이다. 악을 보호하는 자명고를 없앴으로써 선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호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 두 명과 함께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 간다. 호동의 무예가 뛰어나 당할 자가 없다(「유치진 전집」, 이하 유치진, p.323) 해도 많은 군사와 직접 싸움을 벌이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혼자 일국의 많은 군사와 정면대결하는 무모한 돌진형 인물이다. 목표를 향해 주도면밀했던 이동규의 호동과 대비된다. 호동의 관념 또한 변화를 모른다. 확신에 찬 자기 신뢰가 그의 존재를 억압한다. 호동은 낙랑을 민족의 한 부분으로 흡수하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그 의지가 굳다.

호동 :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이 땅의 부르심을 받은 젊은 사나이로서 저 하잘것없는 오랑캐에게 사로잡혀 이 꼴이 된 죄밖에 없는가 보오(유치진 p.341)

호동 : 단군께서 도읍하시던 이 거룩한 신역에다가 어이하여 저 오랑캐를 -종략- 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수작은 삼가소서.(유치진 p.342)

호동 : 보아라! 수천 수만의 우리의 겨레를! 한줄기의 핏줄에 얽힌 우리를 -

45) 아리스토텔레스, p.101-107.

한용환, 「소설의 이론」, p.135. 문학아카데미, 1990.

46) 조남현, p.144.



중략- 만 갈래로 찢어 동족상잔을 시키려던 너희들 잔악한 무리를 도륙하려 우리는 일어섰다. 빼앗긴 국토를 다시 찾으려는 우리의 정의의 창끝은 너희들의 간담을 노리고 있노라(유치진 p.343)

호동은 사로잡혀 문초를 당하면서도 굽힐 줄 모르는 자기 의지를 나타낸다. 호동의 민족 공동체 형성의지는 죽음을 각오한 결연한 것이다. 호동은 스스로 단군 왕조를 정통으로 계승하는 고구려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강한 자의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호동은 하나된 민족 공동체 국가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다. 호전적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호동의 이러한 일관된 의지는 끝까지 이어진다. 고정된 성격으로 평면적 인물로 분류될 수 있겠다.

호동의 인물을 표현하는 데는 '직접적 제시'<sup>47)</sup>에 의해 이루어진다. 함축이나 상징, 우회 표현에 의해 자기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주장을 통해 직접 화법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북 찢는 과업을 이룬 기쁨에 호동은 공주의 치마를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목표지향의 강인한 성격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낙랑군으로 둘러싸인 왕궁에서 낙랑의 신고를 찢는다. 이제 호동은 어떻게 되는가? 죽는가 아니면 살아 나가서 민족 단일국가 체제 형성의 대업을 이루는가. 호동이 직접 제시하던 자신의 의지는 어디까지인가? 북찢음까지인가, 단일 민족 국가 형성의 대업까지인가? 계산되지 않은 인물 설정의 표본이다. 호동이 심문당하는 장면과 공주를 만나는 장면에서 호동은 계몽적이다. 호동은 통일 대업을 꿈꾸는 고구려 왕족의 무인이자 민족사상가가 아니다. 통일 대업의 유일한 대리자인 듯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나르시스적 우월 태도에 함몰되었다.

등장 인물은 작자의 상상력으로부터 나오거나 작자의 자화상<sup>48)</sup>일 수

47) 김천혜, 「소설구조의 이론」, p.184. 문학과 지성사, 1990.  
한용환, p.141.

48) 조남현, p.132, 133.

테니스 著, 이대주 譯, 「연극원론」, p.109. 현대미학사, 1992.

있다.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인물이지만 작자는 등장 인물들로부터 자신의 목소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물을 태어나게 할 뿐 억압하지 않는다<sup>49)</sup>는 말이 시사하는 바가 그것이다. 유치진은 호동을 통해 너무 큰 자기 목소리를 낸다. 자신의 이념 표출을 위해 '인물을 노예화'<sup>50)</sup>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격 창조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작품 발표 당시(1947년)의 시대 상황을 작자는 지나치게 도식적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1947년경은 좌익연극운동이 역사 소재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던 해이다. 이 때 '우익의 대안'<sup>51)</sup>으로 급조한 작품이 <자명고>로 생각되며, 계몽투의 문학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이다. 47년 주변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분단 극복 의지와 신탁 통치에 대한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낙랑공주의 성격에는 발전이 있다. '발견에 의한 급전'<sup>52)</sup>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게 된다. 공주가 무지에서 앎으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호동이 매개한다. 호동의 굳고 일관된 의지 표현이 공주의 기존 사고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단일 성격의 인물이 강한 인상으로 남는 경우이다. 공주가 호동을 만나기 전에는 한나라의 식민지인 낙랑을 바로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동의 주장과 설득을 통해 공주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행동<sup>53)</sup>으로 먼저 나타난다.

공 주 : (호동이 끌려나간 쪽을 꼼짝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다)

(「유치진 전집」1, 이하 유치진. p.344)

공주의 변화는 빠르다. 외부의 자극을 민감하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49) 루카치 著, 반성완 譯, 「소설의 이론」, p.123-145. 심설당, 1985.

50) 한용환, p.141.

51) 서연호, p.326~330, 359.

52) 아리스토텔레스, p.78.

53) 행동의 개념은 광의적이거나 여기서는 무대지시문에 의한 움직임 정도로 한다.

다. 공주는 스스로 왕자를 찾아가 자신의 의식 변화를 추구한다. 감옥으로 왕자를 찾아감은 공주가 합리적 세계관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공주가 지금까지의 관념들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가는 과정이다. 공주는 낙랑에서 호도된 교육과 관념 속에서 살아왔음을 자각해 간다. 새로움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공주의 입체적 성격이 나타난다. 다양한 변화가 준비되고 있는 인물이다. 급전에 의한 성격 변화로 관객에게 놀라움을 주는 인물이 입체적 인물<sup>54)</sup>이 것이다. 공주는 자신의 북짓음이 '나라의 명줄을 끊고 부왕의 옥체에 칼을 대는 일'(유치진 p.366)임을 알고 있지만, '우리 겨레가 한 하늘 밑에서 한 조상을 모시고 말썽 없이 살아보고 싶은'(유치진 p.348) 의식 자각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바깥 세계의 수용에 주저함이 없고 그 조화에도 서툴지 않은 인물이다. 기질적인 면에서 우울질은 외부의 자극을 세심하면서 사변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질이 있는데 낙랑공주가 이에 해당한다. 공주는 즉물적 형태의 인물이기도 한다. 즉물적 인물이란<sup>55)</sup> 객체에 충실하며 그것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는 인물을 뜻한다. 공주는 주변의 상황 변화에 민감하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 수용을 망설이지 않는 인물인 것이다. 수용된 외부 세계는 곧 내면화되어 자신의 세계관화에 즉각적으로 이용된다. 공주 의식 변화에는 변증법적인 발전도 발견된다. 공주와 호동의 관계에서 공주 의식의 점진적 변화 과정이 변증법적인 것이다.

공주의 성격에도 작위적인 요소가 없지 않다. 적대적 관계였던 호동과 공주의 관계가 급속하게 친숙해졌고 심한 갈등 없이 자신의 사고를 파괴했으며, 낙랑의 이념을 비판한 점은 작자의 작위성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자명고>는 주로 호동을 통해 작자의 의도가 강렬하게 나타난다. 호동의 주제 표출성을 강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치진은 공주를 성격의 변화는 있되, 갈등이 거의 없는 인물로 만들어버렸다. 인물이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54) 김천혜, p.181.

55) 조남현, p.343.

주목되는 것이 갈등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공주의 성격 발전 과정과 입체화 과정에서는 갈등이 아주 약화된 채 변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갈등이 약화된 인물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능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동규의 <낙랑공주>에서 공주를 호동이 의도하는 대업의 협력자로 설정했으며 호동의 입장에서 낙랑공주는 부속적 인물 또는 부분 조력자<sup>56)</sup>에 불과했는데, 유치진의 <자명고>에서의 공주도 독자적인 인물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호동 대업의 부분 조력자 내지 호동을 양각하기 위한 음악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공주가 작위적 인물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를 보자.

공주 : 왕자님, 우리는 어찌하여야 서로 화목하고 살 수 있으리까? -중략-  
 낮에는 들에 나가 같이 씨 뿌리고 밤에는 집에 앉아 같이 물레질하고  
 가을에는 같이 거두어 들이고 겨울에는 같이 사슴을 쫓는 그런 세상은  
 어찌하여 맞이할 수 있으리까? 이 땅이 그렇게만 영키기만 한다면  
 이 몸은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이다.(「유치진전집」1, p.348)

이 부분은 조명희의 <낙동강>의 한 부분과 흡사한 점이 발견된다.

이네의 조상이 처음으로 이 강에 고기를 낚고 이 벌에 곡식과 열매를 딸 때부터 세이지도 못할 긴 세월을 오래오래 두고 그네는 참으로 자유로왔다. 서로서로 노래 부르며 서로서로 일하였을 것이다. 남쪽 벌도 자기네 것이요, 북쪽 벌도 자기네 것이었다. 동쪽도 자기네 것이요, 서쪽도 자기네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한 바퀴 굴렀다. 놀고 먹는 계급이 생기고 일하여 먹여주는 계급이 생겼다.

(조명희, 「낙동강」, p.149, 풀빛, 1988)

<낙동강>은 목적의식으로서의 방향전환에서 문제시<sup>57)</sup> 되는 1920년대 문학

56) 한국실화에서 조력자는 산신령같이 전능한 존재나 재난에 빠진 인물보다 우위의 인물로 나타나지만 공주가 호동보다 우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신비한 고각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조력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7) 정한숙, 「현대한국문학사」, p.110. 고려대출판부, 1982.

사의 가장 높은 봉우리<sup>58)</sup>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부분은 자아와 세계가 분리되기 전 서사시대의 모습일 것이고 총체성이 지배하던 시대의 모습일 것이다. 공주의 위 대사도 이러한 <낙동강>의 내용과 비슷하다. 희곡의 대사도 작가 상상력의 반영이고 동시대의 반영이라 생각한다. 이 연장에서 추론하면 <자명고>는 유치진의 사고가 매우 억압적인 상태에서 지어진 것 같다. 47년 당시에 독립, 친일 경력, 분단, 신탁 통치, 민족 의식, 활발한 카프계의 연극, 희망적 세계에 대한 동경 등이 혼합되어 유치진을 강박했던 것 같다. 그래서 공주가 작위적 인물이 되었고 쫓기듯 만든 작품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박감 사로잡힌 유치진의 사고체계가 패러디되고 있는 것이다. 유치진은 자신을 강제하던 동시대로부터 현명히 그러면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작품인것 같다. 사고의 분리<sup>59)</sup>가 패러디의 시작인데 독립후 상황의 급격한 변화와 혼돈이 그에게 사고의 분리를 가져온 것 같다. 동시에 그 당시의 혼돈된 가치관이 패러디되고 있는 것이다. 자기 정위를 갖지 못하던 당시의 정신세계가 고전적 양식의 변형 속에서 패러디되고 있는 것이다. 유치진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선택은 분명하지만 그 선택을 억압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숨겨지지 않고 이처럼 드러날 때 좋은 작품이 결과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고전의 현재화가 간추린 패러디라면 <자명고>는 창작 소재의 고갈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려는 작품밖에 안된다. 이동규의 <낙랑공주>같이 속류 고전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른 분석을 가정해 보면, 호동의 설화적 이야기에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의 불안정한 국가 체제와 <자명고>의 완성되지 못한 국가 체제의 유사함이 있다. 국가 체제가 안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혼란함의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과정 이전과 이후의 사고 분리가 나타난 작품이 <자명고>이다. 20세기의 안정되지 않은 한 시기에 20세기 전 쯤의 '양식이 밀고 들어온'<sup>60)</sup> 것이다. 20세기의 일부가 20세기 전의 한 부분으로

58) 임현영, <조명희론>「낙동강」, p.299. 풀빛, 1988.

59) 린다 허천 著, 김상구의 譯, 「패러디 이론」, p.8. 문예출판사, 1993.

60) 린다허천 著, p.36, p.65.

변형된 것이며, 20세기 전의 한 부분이 20세기의 일부분으로 현재화된 것이다. 그러나 그 패러디는 부정적인 비판의 거리(61)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작위적, 주관적인 양식 변형과 해석이 되고 말았다.

### 2.3 <등등낙랑등>의 인물분석

최인훈의 <등등낙랑등>도 호동의 설화적 이야기가 바탕이 된다. <등등낙랑등>에 관한 논의는 많다.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패러디 관점, 정신분석적 관점, 계모 의붓아들 사랑과 연관된 그리이스 신화와의 관련, 희곡 오이디프스왕과의 관련, 디오니소스적 도취의 관점, 욕망의 구조 관점, 기호론적 관점 등등으로 논의될 수 있겠다. 이상의 여러 관점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논의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라신느의 <페드르>와 패러디적 관점으로 인물들을 간략히 살펴 보겠다. 내용을 항목화한다.

#### ◆ ( )는 필자해석

#### ◆ —는 내용의 부연

(가) 호동, 낙랑을 정벌하고 귀국

(나) 승리에도 불구하고, 낙랑공주 잃은 슬픔에 괴로워함(전체의 소망과 개체의 소망 괴리)

(다) 북짚는 일은 副將의 조작에 의함(부장:지배 논리, 호동:전쟁 영웅 자질 의심, 평범한 인간, 상황이 만든 영웅)

(라) 공주와 호동 부왕의 계비는 쌍둥이

공주-호동과 사랑, 계비-왕비-늙은 부왕과의 결혼에 불만

(마) 왕비, 호동의 괴로움 위로. 낙랑 패망의 복수심. 젊은 왕자와의 사랑 등 복합 심리로 호동과 사랑에 빠짐(환상을 가장한 불륜의 위장, 작가의 속임수)

(바) 호동왕자와 왕비 성관계 가짐-그림자극 형태로 표현. 호동, 심한 죄의식에 빠짐. 왕비, 더 많은 사랑 요구(호동을 진정 사랑함과 호동을 사랑의 죄의식에 빠져 괴로워 하도록 하는 복수심 두 가지가 복합됨. 전자가 강해져감)

61) 린다 허천, p.36.

(사) 호동의 방에서 낙랑의 부처가 나옴-고구려 패망을 기원하는 행위로 참소  
받음 (실제는 낙랑공주에 대한 그리움의 상징)

(아) 나라에 가뭄의 재앙 닦침-곳으로 해원-낙랑의 부처 탓이라 참소-왕실의  
불륜(회곡 오이디프스와 유사)

(자) 부장모반-왕자 호동을 위해(호동, 비극의 운명으로 몰려감)

(차) 왕비, 갈피 없는 마음을 담은 하늘은 없는가 갈망(사랑의 도피 희망, 이을  
배반적 상황에서 갈등. 어미 무당과 호동의 연인 사이에서 갈등)

(카) 곳에서 호동은 죽음을 선택

(타) 왕비, 따라서 자결-첫날부터 이 세상 소리에 귀먹고 세상 모양에 눈멀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등등낙랑등>은 여성적 정념이 근저를 흐르는  
왕비의 사랑 이야기이다. 호동왕자는 전쟁 영웅의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비의 사랑을 상대할 역에 어울릴 만큼 열정적인 자질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호동은 공주를 그리워하며 왕비를 사랑하는 분열된 자아를 갖는다. 호동은  
상황에 이끌려 자기 영역의 확보에 실패한 멍청한 인물이다. 운명적 상황에  
희생되는 비극적 인물이 아니라 마땅치 않은 배역에서 조화되지 못하는 인  
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왕비는 늙은 왕과의 결혼으로 자신의 성적 에너지의 출로가 차단되자 복  
합적 이상 심리를 보이는 인물로 긍정적 감정 양식을 갖지 못한 인물이 돼  
버렸다. 왕비의 호동에 대한 병적 사랑은 금기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치 사랑 본연의 감정에 충실한 한 여인의 모습처럼 위장되며 금기적 사랑  
이기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가장된다. <등등낙랑등>은 해석  
의 다의성이 적용되고 심층 분석을 요하는 작품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  
것이 좋은 작품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상징의 난무, 위장과  
가장을 위한 장치의 과다-대표적인 예로 호동과 왕비의 만남을 환상 속의  
일처럼 처리한다거나 ‘낙랑의 하늘과 숲이 있습니다.’ ‘밤과 낮 속에서 그냥  
살자’와 같이 시적인 듯한 대사로 황설수설하는 것-는 회곡에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다. <등등낙랑등>은 호동의 설화적 이야기, 라신느의 <페드

르>,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프스왕>, 한용운의 시 한 구절, 기타 여러 가지가 패러디화된다. 패러디의 다양한 시도가 주목받는다.

최인훈은 호동의 설화적 이야기를 욕망의 구조로 읽어 낸다. 억눌린 욕망-성적 욕망이든 정치적 욕망이든-을 호동의 이야기의 구조 속에 담아냄으로써 호동의 설화적 이야기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에 의해, 사회 윤리에 의해, 도덕 윤리에 의해 억압당하는 개체와 억압적 상황 모두를 이 작품 속에 패러디화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함몰적 애정에 탐닉하는 즐거리로서는 이 모두를 담기에 성공적이지 못했다. 좀더 희망적인 세상에 대한 슬픈 염원이 분명한 희곡적(연극적)장치를 통해 패러디화 되었어야 했다.

### Ⅲ. 결 론

지금까지,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호동의 설화적 이야기를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희곡 세 작품을 살펴 보았다. 설화를 자세히 고찰한 이유는 원전의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호동설화의 분석을 통해 기록되던 당시의 문화적 면모라든가 그들의 이상, 세계관, 한국적 비극의 원형, 인간 중심의 행동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현재적 변용의 소재가 될 수 있음도 지적 하였다. 호동은 굳은 의지를 지닌 영웅적 모습으로 나타났고 최씨녀(낙랑공주)는 종속적인 인물로 나타났다. 희곡 세 작품은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다.

이동규의 <낙랑공주>에서 낙랑공주는 상황에 희생되는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애국과 호동과의 사랑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공주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행한 감정이나 죽음이었다. 가학적 상황속에서 공주는 절개되는 자아를 지닌 채 자신의 운명적 감정에 매몰되어 갔다. 부분적인 조력자로서 종속적 인물처럼 나타났다. 공주의 강박상태를 이용해 당시 억압적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호동은 목표를 향해 주도면밀하게 저돌하는 강한 의지의 유형적, 평면적 인물이었다. 고전의 현재



화에 성공적이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며 자칫 속류고전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유치진의 <자명고>는 47년의 연극계 사정을 응변하는 작품이었다. 호동의 설화적이야기를 많이 번개 시키고 있었다. 공주는 앞에 의한 발전을 결과하는 입체적 인물로 표현되고 있었다. 또 적대적이었던 호동에 대한 생각이 점차로 바뀌며 잘못된 기존관념을 버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능동적이며 즉물적 인물이었다. 세심한 우울질의 인물도 있었다. 호동의 의지 관철에 부분적인 조력자로 나서면서 호동을 통한 주체 표출의 부속적 인물인듯이 표현되었다. 호동은 목표성취에 돈키호테적 돌진을 거듭하는 평면적 인물이다. 단일한 관념과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서 뚜렷한 인상의 인물로 양각된다. 강박의식이 만연한 당시의 사고세계를 패로디 하고 있다. 지나친 작자의 개입이 나타나 호동은 기능적 인물로 전락하는 듯 하고 작자의 사상을 대변하는 노예적 인물이 되고있는 듯 하다.

최인훈의 <동등 낙랑등>은 복합적이며 상징적이다. 이러한 요소는 이 작품의 단점인 것 같다. 가장과 위장으로 횡설수설하는 작품이 아닌가 한다. 함몰적 애정에 순수한 사랑의 감정양식을 부여하려는 무리가 나타난다. 다양한 욕망의 억압을 패로디화하고 있지만 비판적 거리의 확보에 성공적이지 못하다. 패로디의 대상을 다양화한 의의가 있다.

이상의 작품들은 설화적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일종의 패러디다. 패로디는 고전의 현재적 변용이자 새로운 융합의 형식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작품을 이용해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칫 남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관점과 세계관을 남의 것으로 은유하는 작업에는 늘 새로운 상상력과 창작적 동인이 요구 되는 것 같다.